

## 1989년의 기억과 전교조\*

양달규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노동자역사 한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했던 1989년 여름. 그 여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주로 1971-1973년생들이다. (또한 1989년 당시 중학생들은 1974-1976년생들이다.) 이들을 두고 ‘전교조 세대’라 부르거나 ‘참교육 1세대’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고등학생운동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2009년 현재 이들은 37-39세(넓게는 34-36세까지 포괄)로서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전통적인 세대 위치로 보자면 ‘기성 세대’가 되었다.

이들에게 전교조 출범 당시의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은 매우 ‘전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허영만의 만화 <식객><sup>1)</sup>에

---

\* 이 글은 줄고,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중 7장의 4, 5절과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다. 석사 학위 이후 몇 차례의 교사 대상 강연을 통해 가다듬었던 생각을 정리해서 반영하였다.

1) <식객> 외에도 정도상의 소설 『열아홉의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희망노래』(1990, 녹두)나 그 세대의 한 명으로서 소설가 김종광이 지은 소설 『71년생 다인 이』(2002, 작가정신), 『야살쟁이록』(2004, 우리교육) 그리고 당시 학생들이 펴낸 단행본과 무크지—『이제 거진 어른인 걸요』(동녘, 1990), 『푸른나무』 4호(1990, 푸른나무) 등을 통해 전교조가 출범했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세대적 경험’을

도 이 세대의 ‘학창 시절’의 경험으로 전교조 출범, 교사 해직, 학생들의 시위 등이 소개되기도 하는 걸 보면 ‘전쟁’과 ‘혁명’ 등 세대를 형성하는 ‘공통 경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전교조가 결성됐던 1989년 정세는 매우 역동적이었다. 서울지하철 파업, 현대중공업 128일 투쟁, 임수경-문익환 목사 방북 등과 더불어 전교조의 출범이 있었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이 수세에서 공세로 정세 반전을 위해 총공세로 나서던 때였다. 전교조의 대량 해직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교조 교사의 편에 가장 단호하게 섰던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전국 250여 개 학교에서 연인원 47만 명 이상이 참여한 학생들의 투쟁은 초기 전교조 교사에 대한 엄호,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투쟁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탄압분쇄투쟁, 학생자치권쟁취 등의 요구로 발전해 나갔다.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전교조 출범 당시 학생들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조직’이 아닌 교사들의 ‘전교조’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왜 학생들에게 중요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전교조는 그저 교사들만의 ‘노동조합’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앞부분은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1989년에 벌어졌던 중고등학생들의 움직임 중 전교조와 연관되어 있는 ‘사태’를 서술하고 뒷부분은 그 기억이 망각된 전교조와 학교 현장에서의 사례를 2006년 동성고등학교와 마산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

추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는 그 세대에게 1989년이 단지 ‘선생님들의 전교조’로 국한될 수 없는 기억임을 의미한다.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저항은 투쟁 일지만 보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양돌규,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103>

## 1. 전교조 결성과정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는 1988년 하반기 교육법개정투쟁을 전개하고 11월 20일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전국교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2월 전교협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9년 5월 28일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89년 6월말에는 130개 지회, 600개 분회, 2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중적인 노동조합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탄압에 나서기 시작한다.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각 학교로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 예방을 위한 학부모와의 공조체계 구축방안’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장, 중견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공조회를 구성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또한 당국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노조결성을 주도한 교사들을 파면, 형사처벌키로 하고 6월 22일 노조결성을 주도한 54명을 모두 파면, 해임토록 15개 시도교육위에 하달하는 한편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당국은 1차 탈퇴시한을 7월 15일, 2차 탈퇴시한을 8월 1일로 정하고 집요하게 탈퇴를 종용한다. 또 7월 1일 문교부도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전원 파면·해임조치를 발표하면서 전교조 가입교사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숫자는 2만여 명이라고 반박하면서 『한겨레신문』에 명단을 공개<sup>3)</sup>하기 시작한다. 또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단식수업을 전개하여 많은 교사들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전교조 사수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 각 학교에서 시위, 농성 등이 벌어지자 정부는 32개 학교에 전격적

3) 조합원 명단 공개가 1989년 당시에는 정부 당국의 탄압에 맞서는 전교조의 적극적인 전술이었다. 반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뉴라이트 단체에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수세적으로 맞서고 있다. 2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으로 조기방학을 실시한다.<sup>4)</sup>

7월 13일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연행되자 전교조 집행부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어 6백여 전교조 교사들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명동성당으로 집결해 전교조 사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게 된다. 개학 이후 각 학교에서는 출근투쟁이 전개되고 노동, 농민, 대학생 등 민중진영에서는 전교조 사수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전교조 사수 범국민대회를 몇 차례 개최한다.

결국 9월 20일 현재 파면 156명, 해임 925명, 직권면직 380명, 직위 해제 250명 등 총 1,711명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sup>5)</sup>

## 2. 전교조 지지투쟁

저희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은 5월 달에 해직, 5월달에 징계위에 회부가 돼서, 6월 때, 저희가 한편으로는 직선제 싸움을 했고 한편으로는 전교조 선생님, 해직교사 지키기 운동을 했는데, 직선제 선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지키기 싸움을 했던 거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징계 열리는 그 뭐야, 법인? 법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립학교 법인 사무실 앞에서, 이제 지금도 기억해요. 명동에 있는 뽕땅 백화점 앞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잡은 거예요. 집회를 잡고, 저희도 잡고 그 다음에 졸업생 언니들도 왔고.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롯데 재단에서 진경을 불른 거죠. 그대로 들러서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밤까지 있다가 하고 이제 풀려났는데,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더니 이미 부모님들이 다 데려온 상황이었고, 거기서 대박으로 깨지는 상황이었죠. 다 끌려가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2006.4.24. 서울지역 고등학생운동 경험 김미소 구술).

한 번은 거의 한 이천 학우가 다 내려왔던 거 같애. 근데 그 동력, 그

4) 『한겨레신문』, 1989년 7월 16일.

5) 신임철, 『전교조와 정부간 게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2001, 48쪽.

러니까 이천 명 정도 어쨌든 모여서 막 스승의 날 노래 부르고, 스승의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랬던 거,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선생님들 팔리지 말아요, 막 이런 이런 집회였는데 .....나 1학년일 때 3학년 선배들은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이렇게 조직하고 조직하고 할려고 뭔가 학생들의 그 노력들이나 주도적인 어쨌든 학생층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던 거 같은데, 나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2000명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경험.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결국 선생님들 다 해직됐지.....어쨌든 그중에 맨 마지막 집회는 학생은 한 백여 명 밖에 안 나왔는데. 이날 선생님들은 완전 쫓겨가는. 쫓겨가는 상황, 이 네 분이 학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상황.....그 당시 1학년인 나에게 3학년은, 3학년 그것도 남자는 굉장하 난 무슨 너무너무 어른 같이럼 느껴졌었거들랑. 그런데 그 남자 선배가 정말 교문 밖에서 앉아서 통곡, 남자 통곡하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런데 힘으로 막 그 교문으로 쫓아내는 건 거의 학주와 막 이 막 영커서 영커 거의 이제. 아유 진짜 기억을 할려니까, 좀 그렇다. (눈물) 아우 참, 옛날. 이때도 충격이었지 완전히. 그리고 선생님들 쫓겨가니까 그때 가방, 『한겨레신문』 같은 거 만평 같은 거에 나왔을 거야. 완전히 무슨 교문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 가방 메 갖고 그런 어떤 만평 같은 거, 쫓겨난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때 그 걸 보면서도 나는 쫓겨나는 거 까지 보니까 어쨌든 너무 이런 것들이 충격이었던 거 같애.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교문이 누구나 다 그때 그런 생각, 느낌 했겠지만 교문 안쪽인 학교가 오히려 철창 같은. 어쨌든. 이, 감옥 같은(2006.4.18 서울지역 고등학생운동 경험 서연희 구술).

전교조 결성, 뒤이어 노태우 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탄압이 이어지자 중고등학생들의 전교조 지지투쟁이 촉발된다.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의 전교조 지지투쟁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전교조 출범을 전후한 5월부터 7월 9일까지의 상승기이다. 이 시기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이하 KSCM)이 「선생님 저희가 지켜 드릴게요」<sup>6)</sup>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5월 26일 남서울중학생 2명이 전교조 탄압 반대 등을 담벽에 쓰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5월 29일 광주 광덕고와

6)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선생님 저희가 지켜 드릴게요」, 1989; 전교교직원노동조합, 『학생 권리 침해 사례집』, 1989, 속표지.

서울 신일고에서 각각 학생 2천여 명과 1천 2백여 명이 농성을 전개한다. 이로부터 7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2-10여 개 학교에서 시위와 농성이 매일 전개된다.

이 시기 학생들의 투쟁은 전교조 사수와 지지의 의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학생들은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전술을 시도하고 그러한 전술을 곧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응용하게 된다. 운동장 농성, 단식농성, 밤샘공부, 리본달기, 가두진출, 징계저지 시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한 6월 17일에는 서울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구로고, 신일고 등 10개 학교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민주교육을 위한 고등학생결의대회’가 열렸다.<sup>7)</sup> 이는 각 학교의 첫 연합집회로서 학교 단위의 활동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학교 내를 넘어서 지역 내 대중적 연합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학생들의 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교조에서 단식수업을 전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시기로서 정부 당국도 각 학교 단위에 탄압을 집중하던 시기이기도 하다.<sup>8)</sup> 학생들의 투쟁은 징계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된다.

이 시기 초반에는 매일 10여 개 학교에서 싸움이 발생하지만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7월 14일에는 전국적으로 58개 학교에서, 15일에는 전국적으로 59개의 학교에서 투쟁이 폭발한다. 특히 광주 광덕고와 문성고 학생 3천여 명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던 재단이사장실을 각각 점거 항의 농성을 벌였고 광주 동아여중고생 4천여 명과 송원학원 산하

7) 『한겨레신문』, 1989년 6월 30일.

8) 김진경은 전교조 지도부가 출범 초기 전술적 판단을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즉 정부 당국의 탄압이 지도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부 조직에 가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거치면서 본조의 지도력 이완은 더욱 가속화되어 분회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김진경, 「전국교직원노조의 전망과 과제」, 『전환기의 민주교육』, 푸른나무, 1989, 102-3쪽

남녀 중고생 8천여 명도 비를 맞으며 운동장 농성을 벌였으며 그 결과 징계위를 무산시켰다. 거창중고 학생 500여 명은 거리로 진출했다가 전투경찰과 교사들에 의해 주먹, 곤봉 등으로 구타당하고 신용석 학생이 안면을 구타당한 뒤 3m 아래 개울로 추락하기도 한다.

특히 광주에서의 연합 집회는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광고협)는 7월 20일 전남대학교 5·18 광장에서 ‘교직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연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원래 광고협의 계획은 낮 12시 광주 공설운동장 로터리에 집결, 도청 앞에서 연합집회를 갖기로 했으나 경찰이 1차 집결지와 각 학교 정문을 봉쇄하자 10여 개 학교 학생 5천여 명만 오후 3시 전남대학교에 집결했던 것이다.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후문을 통해 거리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다연발최루탄을 쏘며 저지하자 교문 부근에서 1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20여 개 학교 학생 2만 5천여 명은 각 학교에서 학교 밖 거리로 진출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과정에서 교사 3명과 대학생 7명, 중고생 580여 명 등 600여 명을 연행해 대부분 돌려보냈다.

세 번째 시기는 7월 23일부터 여름방학 시기이다. 여름방학 시기는 대체로 소강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두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하나는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하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2학기 개학 이후를 대비해 지역 학생연합체를 조직하는 노력이었다. 이미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던 광고협(의장 서석고 3학년 강위원)은 7월 29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광주지역 10만 학도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를 지지하며 선생님들을 지키겠다.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조직적으로 연대해 투쟁하겠다. 문교당국은 즉각 전교조와의 대화에 응하라”고 주장했다.<sup>9)</sup>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부고협, 의장 용인고 3학년 황순주)도 8월 3일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15개 남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백서 편찬위원회 편, 『한국교육운동백서 : 1978-1990』, 풀빛, 1990, 664쪽.

너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식을 가졌다.<sup>10)</sup> 부고협은 부산시내 각 구별로 이루어진 ‘학생회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기를 경유하면서 고등학생운동은 전교조에 긴박당하지 않고 좀 더 독자적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컨대 부고협 1기 의장이었던 황순주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운동 주체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도 이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대표하던 연합체 형식의 조직을 준비해서…. 당시 정권에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선전했는데, 선생님을 뺏기는 상황이었고 교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촉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문제도 같이 제기하자면서 나갔던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 주체별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우리는 전교조 투쟁만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교육 주체로 자주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전교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일부분이었다.”<sup>11)</sup>

광고협도 “우리는 단순히 교원노조 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

10) 이외에도 학생연합체들로는 나고련, 목고련이 있었고 서고협, 인고협을 결성하려는 흐름도 있었다. 나고련은 1988년 12월 17일 나주지역 6개교 학생 50여 명이 모여 전국 최초의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조직으로 출범했다. 편집부, 『호름』 통권 6호, 형성사, 1989년 2월호, 194쪽;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1988, 34쪽. 또한 목포지역고등학생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전남 목포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서울지역고등학생협의회 준비위원회는 8월 31일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서울지역 중고등학생협의회 및 전국 규모의 단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89년 9월 1일. 7월 28일에는 인천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을 위한 사전모임이 있기도 했다. 『국민일보』, 1989년 8월 1일. 그러나 광고협과 부고협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서고협의 경우에는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명목상의 조직에 불과한 듯하다.

11) 유윤중,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들불처럼 번진 청소년들의 참교육 운동』, 『인권오름』 제10호, 2006년 6월 27일.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0&page=> 이하의 광고협, 미창고협 성명서 내용에 대한 분석도 유윤중의 글을 참조하였다.

육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인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목청껏 부르짖으며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학내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발전적인 싸움으로 한 차원 높은 싸움을 온몸으로 전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989년 7월 20일 발표했으며 마창고협도 9월 30일 발족선언문에서 “우리 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입시 전쟁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민주 시민의 예비단계로서 모든 학생회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의무와 순종적 인간만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교육자와 재단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 시기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8월 22일부터 그 이후 시기이다. 이 시기 타 지역의 싸움은 상대적으로 소강국면으로 넘어갔지만 광주 지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광고협은 8월 26일 전남대에서 광주 시내 27개 고교 대표자 총회를 갖고 2학기 활동방향과 각 학교 집회 개최 및 연대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어 8월 29일 해직교사 출근투쟁 지원, 탈퇴교사에 대한 학교별 수업 거부, 신규채용 교사에 대한 교문출입 봉쇄 및 수업거부 등을 결의하면서 송원학원 산하 3개교와 대동고, 서석고 등 10여 개 학교에서 학생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 집회 및 농성을 벌였다. 8월 29일 서울에서도 풍문여고 학생 1천 5백여 명과 상도여중 학생 1천여 명이 교내 농성을 벌였고 인천외국어학교, 세일고, 성현고 학생들도 같은 날 교내 농성을 전개했다.<sup>12)</sup> 한편 이 시기에 마산·창원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마창고협)도 결성이 된다. 9월 20일 건설 준비위가 결성되고 9월 30일 출범을 하게 된다.<sup>13)</sup>

12) 『한겨레신문』, 1989년 8월 29일.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백서 편찬위원회 편,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 풀빛, 1990, 664쪽.

### 3. 학생탄압 분쇄투쟁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가해진 탄압의 주체는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뿐만이 아니었다. 경찰과 문교 당국 등까지도 학생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형태는 다양했다. 학생에 대한 협박과 불이익처분부터 시작해서 학생회 집회 방해, 주먹과 몽둥이를 사용한 폭행,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의 징계, 전투경찰에 의한 집회 폭력 진압과 연행·수사 과정에서의 폭행 등이었다.

먼저 경찰은 1989년 6월 26일 고교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전국 고교생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치안본부가 고교생 조직의 각 지역별 조직 실태, 대표 및 핵심인물 인적사항, 각 조직의 가입학교 및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sup>14)</sup>

문교부도 6월 29일 전국 시도교위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회의를 통해 집단시위나 의식화 집회와 관련된 학생 또는 조직을 파악해 선도토록 하고 선도가 안 될 경우에는 제적·정학 등 중징계하도록 결정했다. 또 학교별로 지도위원회를 두고 검찰·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춰 관련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와 함께 관련 조직이 결성되었을 때는 해체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sup>15)</sup> 또 여름방학 개학 이후인 8월 1일에도 치안본부는 중고교 내 교원노조 관련 의식화활동을 파악해 8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sup>16)</sup> 그리하여 광고협 의장이었던 광주 서석고 강위원 학생이 제적, 구속되기도 하였다.<sup>17)</sup>

14) 『한겨레신문』, 1989년 6월 30일.

15) 『한겨레신문』, 같은 날.

16) 『세계일보』, 1989년 8월 2일, 『조선일보』, 1989년 8월 2일, 『중앙일보』, 1989년 8월 1일, 『동아일보』, 1989년 8월 1일.

17) “광주지역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의장 강위원(19·광주 서석고 3년 제적), 광고협 기획부장 김일수(19·광주 대동고 3), 광주 서석고 학생회장 임희용(19)군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표 1〉 1989년 탄압 현황

| 분류          | 명단   |
|-------------|--|
| 구속(5명)      | 김일수(광주 대동고·광고협 기획부장), 강위원(광주 서석고·광고협 의장), 임희용(광주 서석고 학생회장), 이준범(인천체육고), 유민수(경시 일산중고 부회장)   |
| 불구속 입건(10명) | 윤석남, 최명균, 박한기, 김기태 (이상 일산중고), 김진채, 김종호, 허남중, 박석주, 심을석, 김상신(이상 전남 옥파고)  |
| 퇴학          | 김설준(남서울상고·전 학생회장), 유민수, 김희정(부산사대부고, 부고협 총무부장), 강위원(광주 서석고·광고협 의장)  |
| 권고자퇴        | 김대욱(남서울상고), 이창배, 박문석(이상 서울 광신고)  |
| 무기정확        | 강종철 외 1명(전남 고흥 영주고), 김영선·서창원(이상 서울 관악고), 이창수, 양지흠 (이상 서울 광신중), 문봉덕, 정강수, 임종기, 전택용(이상 경기 철원 김화중), 황순주(부산 용인고·부고협 의장), 양재호, 이상석, 손동열(이상 부산진고), 김은경(서울 고척고), 이정석, 이정훈, 이희용, 강태훈 외 4명(이상 대구 배영고) |

출처 : 유인물 「반교육의 현장—학생탄압 극심」, 1989년 12월

이러한 국가와 문교당국, 그리고 학교 측의 탄압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구속 5명, 불구속입건 10명, 퇴학 7명, 무기정학 28명, 유기정학 40명, 근신 72명 등에 이른다. 이 명단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sup>18)</sup> 이에 대한 각 지역, 각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8월 3일 부고협 결성 이후 개학과 함께 등교한 부고협 부의장이고 학산여고 학생회장이기도 했던 강미의 등교 소식에 학산여고 학생들은 칠판에 ‘강미는 우리의 힘’이라고 썼다가 학생 1명이 구타당했다. 이어 1·2학년생들의 부분적인 수업거부도 있었다. 또한 9월 1일에는 학산여고 1500여 명이 운동장에서 학생회장 징계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에 부고협 부의장 강미는 학생들 앞에 나와 부고협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강군 등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교생들의 순수한 뜻이 전교조 지지 움직임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행동이 ‘좌경·용공’ 등으로 왜곡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군 등은 지난해 전교조 결성 이후 이를 지지하기 위해 7월 22일 광주지역 24개 고교생 대표들로 ‘광고협’을 결성, 같은 달 29일과 9월 5일 전남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교문 밖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 3·4회에 걸쳐 교내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한겨레신문』, 1990년 1월 26일

18) 유인물 「반교육의 현장—학생탄압 극심」, 1989년 12월

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강미는 무기정확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었다.<sup>19)</sup> 부고협 의장인 황순주의 경우는 9월 7일, 징계위원회에서 제적이 부결되었으나 용인고등학교 교장은 직권으로 황순주를 제적시켰다. 이에 9월 9일 전교생 1800여 명이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비가 오는 가운데 운동장, 복도, 교실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결국 학생들의 투쟁에 힘입어 황순주에 대한 제적 결정은 9월 10일 무기정확과 학생회장직 박탈로 철회되었다.<sup>20)</sup>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학생의 날 행사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탄압들은 1989년 전교조 투쟁을 통해 확산된 고등학생 운동의 대중적 저변 확대를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들로서 경찰과 시교위, 학교가 합세하여 파상적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남 대천의 럭키 예식장에서 있었던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 42명은 징계를 당했다.<sup>21)</sup> 서울에서도 학생의 날 행사가 탄압을 받았다. 서울지역고등학생단체연합은 11월 1-4일까지를 학생주간으로 선포하고 고려대에서 첫날인 11월 1일 ‘학생주간 선포식’과 ‘참교육을 위한 우리노래 경연대회’를 열려고 하였다.<sup>22)</sup> 그런데 행사 장소인 고려대를 전투경찰 10개 중대가 원천봉쇄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중강당에 2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강행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수십 발의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하려고 했고 이에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경찰은 5분 내로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연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은 안전 귀가 보장을 조건으로 자진 해산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

19) 부고협 편집부, 『부고협 소식지』 3호,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1989년 11월 3일, 4쪽.

20) 부고협 편집부, 『부고협 소식지』 2호,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1989년 10월 4일, 4쪽.

21) 신현수, 「나는 이제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九龍』 제11집, 서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989; 국어교육을 위한 대천·보령지역 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천·보령지회, 「보도자료 : 대천보령지역 학생의 날 기념행사 탄압」, 1989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백서 편찬위원회 편, 『한국교육운동백서 : 1978-1990』, 풀빛, 1990, 617-8쪽.

22) 서울지역고등학생단체연합은 KSCM, 홍사단고등학생아카데미(홍고아), 푸른나무 이야기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는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도열하여 정문을 지켰고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참교육의 합성으로’ 등을 부르며 교정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경찰은 해산 중이던 대열을 향해 최루탄을 난사하고 미처 버스에 타지 못한 학생들을 연행했으며 이미 출발한 버스도 세워 중고등학생들도 연행되었다. 이날 연행된 총 숫자는 45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모두 서울 성북서로 연행되었다. 명지고 3년 모군은 전경버스에서 전경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KSCM의 지도교사인 이민섭도 강제 연행되고 폭행과 손찌검을 당했으며 행사 필름도 빼앗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행사가 좌경 폭력세력의 전위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전교조와의 연관을 밝히려 하였다. 이에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있던 KSCM 사무실에서는 고등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농성을 일주일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날의 수사는 서울 성북서 박성보 총경 지시로 대공3계에서 작성한 ‘연행자 심문사항’이라는 지침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지침서의 내용은 행사 목적 및 동기에 대해서 ▶ 좌경세력들의 전위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 유도, ▶ 고교생들의 조직화·세력화를 위한 고교생 선전·선동 목적이라는 답변 유도, ▶ 극한투쟁으로 전교조 위상 재정립 및 좌경세력들과의 연계투쟁이라고 답변 유도 등이었다.<sup>23)</sup> 이 지침서가 다음날 연합뉴스와 각 일간지에 보도돼 물의를 빚자 성북경찰서 박성보 서장은 지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연행된 45명의 참가 학생 신원은 각 학교에 통고되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각 학교에서는 시교위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 및 각서를 쓰게 강요하고 중징계 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경찰은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행사도 역시 원천봉쇄했다.<sup>24)</sup> 특히 강제 연행됐던 서울 고척고등학교

23)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학생의 날 주간행사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9년 11월 4일.

24)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학생인권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9년 11월 6일.

(교장 김종옥) 학생 10여 명은 혼방조치 된 후 학교 과학실, 도서실 등에 감금된 채 교사들로부터 구타당했다. 이어 학교 측은 ‘학교 허락 없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7명의 학생에게 근신, 3명의 학생에게 유기정학을, 그리고 1명의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렸다.<sup>25)</sup>

한편 이외에도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목포에서는 11월 3-5일에 목포대학교에서 전교조 목포지회 주최로 전시회, 강연회, 가요제, 발표회 등을 가졌고<sup>26)</sup> 청주에서는 11월 5일 충북대 사대에서 정다운교실만들기 고등학생 모임 주최로 풍물, 노래발표, 마당극, 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열렸다.<sup>27)</sup> 참교육실현을 위한 동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동부지역 시민문화제’를 열었고 광주에서는 광고협 주최로 10월 30일-11월 5일까지 학생주간 행사를 가졌다. 부산에서는 부산YMCA·참교육을 위한 부산 학부모회 주최로 부산여자대학에서 10월 30일-11월 5일까지 학생주간 행사를 가졌고 울산에서는 학생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11월 5일 울산대 야외공연장에서 마당극, 대동놀이 등 행사를 개최하고 울산·울주지역 학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고협 의장 이형준과 부고협 의장 황순주가 ‘구속학우 석방 및 학생 부당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1989년 11월 22일부터 평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sup>28)</sup> 23일에는 전교조 관련 건으로 퇴학당한 남서울상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철준이 성명을 내고 농성에 참여

25) 한국기독교교사회운동연합, 「학생 탄압에 앞장서는 교육 관료들을 규탄한다」, 1989년 11월 9일.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포지회, 「학생의 날 기념 제1회 학생문화제」, 1989년 11월 3일.

27) 정다운교실만들기 고등학생 모임, 「고교생 놀이마당」, 1989년 11월.

28) 「공동성명서—구속학우 석방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1989년 11월 22일. 이 성명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발굴하여 2006년 7월 현재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다. 광고협·부고협, 「구속학우 석방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인권오름』 제10호, 2006년 6월 27일.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93>

하였다.<sup>29)</sup> 또한 26일에는 마창고협 부의장 전경국도 성명서를 내고 농성에 합류하였다.<sup>30)</sup> 이 농성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로 장소를 옮겨 이어졌다.<sup>31)</sup> 이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동조 농성도 이어져 11월 25일 100명, 26일에는 200여 명이 결집하여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지지 및 학생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토론을 벌이고 농성장을 지켰다. 또 광고협 집행부 26명이 전남대에서 23일부터 4일간 동조단식을 했고 26일 전남대 5·18 광장에서 6백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구속학생 석방 및 학생탄압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부고협 70여 명은 부산대에서 25-26일 단식농성을 벌였다.<sup>32)</sup>

#### 4. 1991년 마산공고와 2006년 동성고등학교

앞에서는 1989년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사실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망각’되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도록 한다. 그 ‘망각의 사례’로서 2006년 학교 현장, 특히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들과 마산공고에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6년 4월 19일 서울 양동중학교에서는 100-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29) 「광고협·부고협의 구속학우 석방 및 학생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김철준, 1989년 11월 23일.

30) 「구속학우 석방 및 학생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마산장원지역고교생대표자협의회, 1989년 11월 26일.

31)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고협 의장 이형준, 부고협 의장 황순주, 23일부터 합류한 남서울상고 학생회장 김철준, 26일부터 합류한 마창고협 부의장 전경국. 미상, 「반교육의 현장—학생탄압 극심」, 1989년 12월.

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백서 편찬위원회 편, 『한국교육운동백서 : 1978-1990』, 풀빛, 1990, 594쪽.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학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불과 십여 분만에 교사 45명의 제지로 곧 해산 당했고 학교는 즉각 교사 및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대처방안과 징계를 논의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위를 계획하거나 앞장 선 학생 7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33)</sup>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에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sup>34)</sup>를 결성하고 5월 10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 인권 찾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규율체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인권운동에 ‘징계’로 화답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6년 서울 동성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오병헌 씨 사례이다.

5월 8일 아침, 서울의 동성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오병헌 씨가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오병헌 씨는 두발규정 폐지, 비상식적인 징계 금지, 강제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 폐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학교 측은 7월 4일 복장용의규정 불이행,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허위사실과 허락받지 않은 사실 유포, 학생 선동과 질서 문란 등의 사유를 들어 학교징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내렸다.<sup>35)</sup>

33) 유윤중,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양동중, 동성고, 그리고 5.14...」, 『인권오름』 제3호, 2006년 5월 10일.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8>; 성현석, 「청소년 인권, 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제」, 『프레시안』 2006년 5월 12일;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22일.

34) 준비위원회에는 문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내 종교자유,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이 함께 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는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의 청소년인권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미래’를 넘어 ‘현재’로—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6 백서』, 2006.

35) 전누리, 「다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인권오름』 제11호, 2006년 7월 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5월 8일 오병헌 씨의 1인시위가 벌어졌을 때부터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하면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시에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sup>36)</sup> 그러나 결과는 결국 징계조치였다. 징계가 내려지던 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성고 바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징계제도 철회하고 학생인권 보장하라! 징계 받아야 할 것은 오병헌 학생이 아니라 억압적 규칙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청소년 인권활동가들과 35개 인권운동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징계 조치 후 7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후 이루어진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징계권은 학교 자율권의 영역이라며 발을 뺐고 사회통념상 두발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sup>37)</sup>

1995년 강원 춘천고등학교 최우주 씨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때도 학교장으로부터 권고 자퇴나 전학을 강요 받았고,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던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씨도 학교에서 제적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서울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학생 또한 비슷한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고등학생운동의 사례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즐비한 그 사례들 중에 2006년 다시 ‘귀환’한 사건이 바로 마산공고 퇴학생들의 복학을 둘러싼 지역 사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이었다.

1991년 5월 21일, 마창고협은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대학교 한마관에서 ‘해직교사 만남의 날 및 마창고협 3기 출범식’을 열기로 계획하였

<http://www.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10&page=2>

36) 최경배, 「고3 재학생, ‘체벌·두발규제 개선 등 인권보장’ 학교앞 1인시위」, 『노컷뉴스』, 2006년 5월 8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225250>

37) 최승덕, 「서울시교육청, 오병헌군 징계 해결 요구 거절」, 『프로메테우스』, 2006년 7월 8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60708/20060708152900.html>

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경남대 주변에는 전투경찰이 투입되었다. 어쩔 수 없이 행사는 무학산으로 옮겨 치러졌다.

이후 마산공고에서는 취업실습을 두어 달 남겨둔 상태에서 정환선, 노정현, 배동환, 최성호, 추현충이 마창고협 활동을 하던 것이 발각되어 퇴학당했고<sup>38)</sup> 특히 추현충의 경우 전기과 실습실로 끌려가 학교 측으로부터 코빼가 내려앉을 정도의 구타를 당했다. 그는 이날의 구타로 인한 충격을 받은 후 같은 날 학교 뒷산에 올라 수면제를 먹고 칼로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그는 등산객에게 발견 되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3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되어 있었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2005년 12월과 2006년 4월, 두 번에 걸쳐 이 ‘아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 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4월 27일 민주화운동 심의위는 마산공고로 ‘민주화운동관련자(학사징계) 명예회복 조치 권고’ 서한<sup>39)</sup>을 발송했다.

퇴학·권고자퇴를 받았던 정환선, 노정현, 배동환, 최성호, 4명은 ‘잃어버린 15년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와 ‘복학·졸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또한 당시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6월 5일 학교 측과 학생들은 면담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

38) 이후 추현충은 무기정학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당시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학생 3명 퇴학, 1명 자퇴, 5명 무기정학이었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2명 해직, 1명 3개월 정직, 1명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집회·참여실천 교사대회·5·18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참가, 전교조 해직교사를 위한 스승의 날 행사를 조직하여 해직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집회 주도, 마산공고 해직교사 부당징계 철회 요구 벽보 부착 및 전단지 배부, 학생부당징계 철회 요구 및 학내의 홍보 등.

39)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를 받은 관련자로 심의·의결한 관련자(정환선·노정현·배동환·최성호)에 대해 학사 징계자 징계기록말소 등을 권고(중략) 위와 관련해 본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합니다.’ 『경남도민일보』, 2006년 6월 7일.

고 조울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당시 교내 징계상벌규정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었던 만큼 사과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리고 6월 10일 마산공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 사과’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6월 28일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복학을 촉구하고 “학교는 반인권적 학생 탄압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대신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최소한의 교육자적인 양심까지도 의심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정환선 씨는 마산시 합성동 팔룡교육단지 입구에서 ‘인권유린 부당징계 마산공고는 사과하라’, ‘명예회복 가로막는 마산공고는 각성하라’는 문구를 새긴 피켓을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자 결국 마산공고는 6월 29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사과문에서 “1991년 5월, 참교육과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활동으로 학교에서 당한 징계과정에서의 유·무형의 폭력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히고 또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본교에서 해직 등 징계를 받으신 네 분의 선생님(장세근, 박용규, 이보완, 손영옥)께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징계를 받았던 정환선 씨 등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도 6월 30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는 한편 “다른 30여 명의 고교 퇴학생들도 명예회복과 졸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복학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과’를 둘러싼 마산공고 사태는 20여 일만에 일단락되었다.<sup>40)</sup>

40) 마산공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남도민일보』, 2006년 6월 5일, 2006년 6월 6일, 2006년 6월 7일, 2006년 6월 8일, 2006년 6월 9일, 2006년 6월 13일, 2006년 6월 28일, 2006년 6월 29일, 2006년 6월 30일, 2006년 7월 1일과 『동아일보』 2006년 6월 12일을 참조할 것. 마산공고 사례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2006년 6월 30일)에도 소개되어 배동환 씨의 전화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인터뷰 내용은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967752&menuid=45>

2006년 마산공고 사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5년 전 추헌충을 구타해 자살 기도까지 하게 만든 가해교사의 현재 삶이다. 그는 현재 여전히 마산공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6월 5일 마산공고에서 추헌충은 가해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가해교사는 사과를 했고 미안한 마음임을 전했다. 놀랍게도 그는 현재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한다.<sup>41)</sup>

그는 어떤 삶의 궤적을 겪어야 했을까?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초청해 개최하고자 했던 스승의 날 행사,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학생들을 구타한 교사가 있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사수하고자 했던 전교조의 조합원이 되어 있었다.

28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마산공고 분회는 학생들의 복학에 단 한번의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처하다’며 ‘침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는 그나마 전교조 경남지회의 성명으로 면피했다. 그런데 전교조 경남지부의 6월 30일 환영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는 앞으로 복학생 4명과 함께 이들과 같은 굴절된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30여명의 고등학교 퇴학생들도 명예회복과 졸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토대로 한 복학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sup>42)</sup>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고등학생들은 전국적으

&boardtype=L&page=&articleid=1558에서 들을 수 있다.

- 41) 김주완, 「전교조에 가입한 ‘폭력교사」, 『경남도민일보』 2006년 6월 29일. 그 후 그 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했다. 이 글은 그 교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를 마땅히 탈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교조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게 만든다. 필자 주위의 교사들은 전교조를 하나의 ‘옵션’이라고 증언한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나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는 탈퇴할 수도 있는 옵션 말이다.
- 42) 전교조 경남지부·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민주화운동 퇴학생 4명 퇴학처분 사과와 즉각 복학을 결정한 마산공고 학교 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2006년 6월 30일.

로 38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4명이 복학을 하게 된 것으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전교조 경남지부 자유게시판에는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현황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명서에 밝힌 그러한 약속이 공문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편이 기꺼이 되어줬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그것이 전교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겁니다.”<sup>43)</sup>

이 게시물에 대한 답글은 달리지 않았지만 6월 30일 환영성명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아무런 ‘현황조사’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남도민일보 7월 26일자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자유게시판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대변인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 “아직 다른 사업들이 많아 (성명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체계적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서두르겠다”는 내용을 실었다.<sup>44)</sup>

경남도민일보 기사가 나올 시점에 전교조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상경철야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이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교육부 앞 릴레이 상경 철야투쟁’에 이은 2차 투쟁이었다.

2006년 5월 동성고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오병헌 학생에 대한 중징계가 7월에 내려진 후, 오병헌 학생은 한 좌담회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43) 가교과, 「마산공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자유게시판, 2006년 7월 15일

<http://chamkn.eduhope.net/bbs/view.php?board=chamkn-g1&id=3192&page=4>

44) 김성찬, 「“선생님…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경남도민일보』, 2006년 7월 26일

“많은 교사들이 나를 불러내서 투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교조 교사를 믿고 있었다. 방관했던 사람들, 수백 명의 학생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나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싫었다. 애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국가주의랑 너무 흡사했다.……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특히 전교조 교사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접할 때면 분노를 느꼈다. 여전히 전교조 교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싶었다. 나 또한 그간 충분히 얘기를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 ‘제발 좀 같이 합시다’. 학생들에겐 교사들의 힘이 절실하다.”<sup>45)</sup>

좌담회에 나란히 참석한 동성고등학교 김행수 교사는 동성고등학교 교사사회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1인 시위 첫 날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를 문제 삼는 교사는 아주 극소수였고 시위자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언론에서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만 보도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당황했다. 학생인권 탄압의 최정점에 동성고가 있다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분개했고 당장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아직 하나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46)</sup>

김 교사의 전언처럼 학내 교사사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동성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 또한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병현의 말처럼 전교조에 실망하지 않을 학생들은 없다. 학내 상황이 좋지 않자 네트워크의 인권활동가들도 전교조 동성고등학교 분회의 한 교사에게 분회 모임시 참석해서 네트워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는 “학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병현이가 너무 많은 요구를 했다”며 인권활동가의 요청

45) 김상정, 「학생인권! 교사·학생의 소통과 연대를 위하여—교육희망 학생인권 좌담회」, 『교육희망』, 2006년 7월 1일.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7195>

46) 김상정, 같은 글.

을 거절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는 2006년 7월 26일 ‘아이들 살리기 운동 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2006년 5월 15일 전교조가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뒤이은 것으로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무원노조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sup>47)</sup>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병헌은 꾸준히 학생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병헌은 네트워크의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수원교육청, 전주교육청 앞에서 8월 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에서 오병헌은 “세금 먹고 뭐하세요? 좀 들어라. 우리가 인권 침해할 말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섰다.<sup>48)</sup>

또한 네트워크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를 돌며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에 나선다. 그러나 전교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교조는 지원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와 부산은 전국행진의 방문지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 글은 전교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들에 현미경을 맞춰보았을 때 사태가 어떠한가를 짚어보자는 것이다. 마산공고의 가해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인지 전교조 마산공고 분회가 침묵했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보상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교조를, 학생들의 인권 쟁취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

47) 참여단체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문화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48) 성현석, 「시위 외에는 방법이 없었느냐고요?」, 『프레스리안』, 2006년 8월 7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807143035](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807143035); 이정민, 「우리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시민의신문』, 2006년 8월 7일.

<http://www.ngotimes.net/PhotoGalleryList.aspx?ano=39121>

운데서도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  
를 출범시키는 전교조를 비난할 의도는 나에게 없다.

우리는 1989년 전교조 사수투쟁 때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는 서태지와 같은 하나의 아  
이콘이었다.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건 고등학생운  
동을 하던 활동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전교  
조 교사’였고 ‘전교조 교사다’ 싶으면 ‘역시 달랐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 10시까지 이어지는 학교생활은 그나마 전교조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정도였다.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산소 같은 교  
사들, 그들로부터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  
했다. 당시 운동사회에서 유행하던 노래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에 나  
오는 노랫말처럼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는  
‘벗’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연인원 47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학생들이 행동에 나섰던 대중  
적 투쟁은 이와 같은 전교조 교사들의 모습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바로 그때 교사-학생의 관계는 사제지간이라는 관계를 다른 관계로 전  
변시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989년에 ‘교사와 학생들이 투쟁  
했다’는 그 사실들만은 아니다. 전혀 다른 관계의 지평 위에서 마주했  
던 존재들, 그리고 어떻게 전혀 다른 관계의 지평이 만들어질 수 있었  
는지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통제하는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행위자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존재, 예컨대 ‘벗’,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은 중요하  
게 기억되어야 한다.

당장 동기 같은 거.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주인  
공의 복수를 가장 정당화시켜주는 거는, 더 처절한 복수를 용인하는 매개  
가 뭐냐 하면, 지가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당  
했다는 사실. 거기서 온다고 한다면 친구 같은 선생들이 당하는데 결속력  
이 강한 거죠.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선생들이 뜨드려 맞은 학교는  
친구들 간에도 상당한 결속력과 어떤 우정, 또는 이제 이 학교에 대한 어

면 책임을 진다는, 그게 잘 된 거였건 잘못 된 거였건, 캠페 같은 교육관료들에 맞서서 우리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 같고(2006.6.18. 대구 고등학생운동 경험 엄태민 구술).

관계의 전변, 그 전제가 아니고서 학생들은 ‘남의 문제’에 함께 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건 학생들만이 아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는 버스·택시노조의 파업, 환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병원노조의 파업,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지하철파업. 승객, 환자, 시민은 이 파업이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노조의 선전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남의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 외려 그것을 립 서비스로 치부한다. 그리고 쌍심지를 켜고 밥그릇 싸움에 자신들을 불모로 삼았다며 노조에 온갖 악담을 들이붓는다. 서비스 개선에 찬성하고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에 무엇보다 관심이 있으며 안전한 운송수단이 되기를 열망하는 이들 승객, 환자, 시민은 이들이 승객, 환자, 시민으로 머물고 있는 한, 그래서 강 건너 남의 집에 난 불처럼 여기는 한, 아마도 파업에 반대할 것이다. 승객은 운전자를, 환자는 의료노동자를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택시, 버스, 지하철이 가기를 원하고 탑승하길 바라며 의료노동자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뿐이다. 그건 이들이 ‘승객’이고 ‘환자’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더 이상 교사가 아닌 존재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아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교사에게 다가갔다. 그 ‘다가감’과 ‘마주침’이 친구 이상의 ‘동지’에 가까운 어떤 관계를 빚어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남의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수투쟁에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나설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바로 그때 아이들에게 전교조는 더 이상 ‘남의 조직’이 아니었다. 꼭 사수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거리집회에서 전교조 깃발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시절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아직 전교조가 지켜질 수 있었구나, 하는 감동.

펠릭스 가파리는 이렇게 운동의 과정에서 관계가 전변되는 것을 ‘횡단성’으로 개념화한다. 횡단성의 의미는 첫째 ‘이미 형성되어 있는 틀을 뛰어넘는 활동이나 상태’를 지칭한다. 예컨대 학생들은 1989년 비록 소수였지만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나섰다 고 회고하기도 한다. ‘학생을 배후조종하고 물들이려는 전교조’라는 우익선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건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싸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였고 <싸움의 기술>의 백윤식처럼 아예 교사-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는 자신의 신념을 접고 아이의 싸움을 ‘자기의 싸움’으로 받아들이며 싸움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89년의 이 교사들과는 달리 현재 전교조가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주로 ‘대의’의 방식이다. 대의의 방식은 교사-학생의 관계를 횡단하지는 않는다. 또한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지’로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배제하기도 하고 여전히 교사-학생의 관계를 공고한 기초로 삼고, 그 구획을 전제로 활동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학생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횡단성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소통하는 상태’이다. 오병현이 토로하는 답답함은 사실 전교조가 이렇게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상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인간답게 살자고 행동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교사들, 그 사이에서 학생인권의 의제는 과연 각 학교의 싸움터에 있는지 아니면 국회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sup>49)</sup>

학생들의 인권운동에 교사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청소년의 인권과 이들의 삶, 미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자기 문제로 받아 안는 ‘전략’의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9) 가파리의 횡단성 개념과 그것이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허재영, 「노동 운동은 노동운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가」, 『비판』 2호, 박종철출판사, 1997.

그것은 ‘대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취급’을 그만두라는 것이지 않는가. 학교, 가정, 사회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대의’는 관계를 바꾸는 것도 아닐뿐더러, 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주체가 역으로 운동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는 데에 역진하지도 못한다.

## 5. 나아가며

1989년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시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단 한마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 힘들다. 더구나 전교조 분회가 침묵하는 가운데서 20여 일에 걸친 밀고 당기는 싸움 끝해야 겨우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다 같은 유공자가 아니다. 유공자도 서열이 있고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고삐리’일 뿐이다. 18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삐리’인 ‘늙은 고등학생들’은 아직 34명이 더 있다.

2009년의 아이들은 여전히 1989년의 시절을 살고 있다. 20년 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이 2009년 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sup>50)</sup>했다. 20년 전의 ‘살인적인 입시교육’은 여전히 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여전히 각 학교 곳곳에 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여전히 학생들은 오병헌의 사례처럼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각오해야만 한다.

오병헌은 마산공고 퇴학생들의 미래이다. 그렇다면 마산공고 퇴학생들의 현재는 20년 후 오병헌의 과거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학교

50) 『경향신문』 2009년 2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31404441&code=9404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31404441&code=940401)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림길에서 서성인다. 그리고 또한 많은 전교조 교사들도 여전히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는 ‘침묵의 교단’에서 서성인다. 2009년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고사를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 해직된 ‘양심적 교사’가 불과 8명이라는 사실은 절망적이다. 전교조가 일제고사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침조차 내리지 못했다는 비난도 들려온다. 전교조와 전교조가 내건 참교육을 자신의 조직과 이념으로 받아들였던 많은 학생들은 어디에서 서성여야 할까?

확실한 것은 전교조가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전교조는 희망이다. 그 희망의 강렬도는 달라졌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교조는 희망이다. 전교조가 다른 주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희망의 척도이다. 원래 교육이 주체성을 빚어내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도대체 세상이 바뀔 도리는 없지 않는가? 도리어 세상은 새로운 주체성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는가? 바뀌 말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새로운 주체성을 창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진보명론**